

“지역상권 살리자”...나주시청 구내식당 주1회 휴무

월 1회서 확대...시 주관 축제·송년행사 예정대로 추진 페이백·캐시백 등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이벤트도



나주시는 기존 월 1회 운영하던 구내식당 휴무제를 오는 20일부터 매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7월 운영때 나주시장이 구내식당 배식 봉사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 실시한다.

나주시는 20일부터 구내식당 휴무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지역 경기 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주시청 구내식당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조회가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어 일평균 25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운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주관 행사와 축제, 송년행사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각 기관사회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살리고 경기 회복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화폐(나주시 상품권) 발행 예산을 자체 75억원을 편성해 새해 예산에 반영했다.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페이백,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이벤트도 연중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때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카페 운영자와 군청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귀리 커피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시음회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쌀귀리 커피를 아시나요”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시음회

2개 제품 내년 상반기 특허 출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진 쌀귀리 커피 아시나요”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카페 운영자와 군청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귀리 커피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강진만의 차별화된 커피를 만들어 지역 업체 공급 판매를 목표로, 레시피 개발에 착수했다. 중간보고회 때 이뤄진 전문가, 관내 커피 판매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맛, 향, 배합비를 등을 조정해 최종 제품 2종을 개발했다.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및 시장 평가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추가 개최했다. 산미, 단맛, 바디감 등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3.87점을 얻으며 향후 상품화 되면 구매할 의사

가 있다고 평가됐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강진만의 특색 있는 커피를 만들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맛보고 사갈 수 있는 드립백 형태의 제품을 개발,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 레시피가 완성된 후 내년 상반기에 특허 출원 등록이 완료된다. 희망하는 관내 커피판매업소에 레시피 및 커피 제조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앞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 희망하는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컨설팅, 레시피 전수를 통해 지역 대표 커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쌀귀리 커피가 강진의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녹십자·박셀바이오 등 3사 전남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화순군은 녹십자 등 지역 기업 3곳이 전남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기업은 ㈜녹십자, ㈜종합건축사사무소장, ㈜박셀바이오 등 3개 사다

“전남도가 선정한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은 전남도내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에 이바지한 기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신규채용 비율(50%) ▲전년 대비 근로자 수 증가율(30%) ▲지역인재 채용(20%)이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근로자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근로자 복지후생비를 지원한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인재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선 준 시업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기업들이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강진군이 최근 ‘2024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귀농 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소통과 융화 활동에 꾸준한 힘쓴 결과여서 더 돋보인다.

전남도는 매년 귀농어귀촌 정책의 실천과 성과를 평가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선 귀농어귀촌 단체와의 소통과 중앙-도-시군 간 협력이 추가됐으며 강진군은 이 두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귀농귀촌 종합상담 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비대면 강진군 귀농정책 설명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귀농어귀촌인 간담회를 적극 추진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영농 기술 교육, 농업 창업 지원, 주거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와 농촌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돼준다.

또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와 ‘찾아가는 귀농정책 설명회’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강진의 매력을 적극 알리며 이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강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추가 상담과 높은 재방문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번 3년 연속 수상을 통해 다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강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카톡·문자로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수도 요금 고지서 서비스인 ‘과세 알림톡 서비스(포스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세 알림톡은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지로요금 고지서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과세 알림톡을 신청한 수용가는 현재까지 1506가구이며, 담양군은 내년 1월까지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종전대로 지로 고지서를 유지한다.

한 주민은 “지로고지서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요금 고지서를 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자 고지서로의 전환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명 모집

상반기중 입국 영농철 일손 돕기

나주시는 내년 영농철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여명이 입국해 최장 8개월간 지역 농가에 일손을 보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600여명이 지역 200여 농가에 투입됐다. 이 중 150여명은 외국 지자체와 협약으로, 450여명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해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이민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2025년도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비해 사증 발급 일정서 대행 신청 등 입국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했다.

베트남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원활한 교육과 소통을 도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내년 3월부터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

장성군이 내년부터 행정전화 서비스를 전면 개선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발신자정보 표시와 통화녹음시스템을 행정전화에 도입한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발신자정보 표시 기능은 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주민에게 전화를 걸면 주민 스마트폰 화면에 전화번호와 소속부서가 표시되는 서비스다. 주민 입장에서는 발신번호와 소속부서 확인이 가능해

보이스피싱과 스팸전화 걱정을 덜 수 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관광 등 다양한 지역정보도 제공한다.

장성군은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통화녹음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폭언 등 악성민원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이 지난 17일 대동면에서 명품 썩떡 가공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과 이상의 함평군수 등 참석자들이 축하행사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명품 썩떡 가공센터 개소...인절미·송편 등 생산

유기농 썩 활용 다양한 제품 가공

함평군이 명품 썩떡 가공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함평군 명품 썩떡 가공센터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5900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함평군 대동면 동함평산단길에 위치한 가공

터는 부지면적 7746.9㎡에 건축면적 283.27㎡ 규모로, 썩 전처리와 떡 가공을 위한 최첨단 설비 139대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함평의 신소득 작물인 유기농 썩을 활용해 다양한 썩떡 제품을 생산·가공한다.

주요 설비는 버블세척기, 냉각탱크, 착유기, 스팀보일러 등 첨단 가공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인절

미, 앙고떡, 송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명품 썩떡 가공센터는 함평의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함평 썩떡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